

# 고종욱 “몸 상태 최상...우승 기회 놓치지 않을 것”

김호령·이창진 등과 외야 경쟁  
“지난해 많은 출전 기회 좋은 경험  
부상 조심하며 우승 목표로 뛴 것”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2024시즌을 앞둔 KIA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쟁’이다. 선수층이 탄탄해지면서 모든 포지션에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외야도 뜨거운 격전지 중 하나다.

‘주장’ 나성범이 우익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좌익수 소크라테스, 중견수 최원준으로 큰 틀이 잡혔다. 수비로는 리그 탑인 김호령과 ‘돌격대장’ 이창진도 외야의 눈길 끄는 자원이다. 기동력이 중요해진 올 시즌 ‘퓨처스 도루왕’ 박정우도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 시즌 부상에 신음하던 KIA 타선을 지켜준 ‘3할 타자’ 고종욱도 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장점으로 외야 전장을 벌이고 있는 상황. 고종욱이 시범경기를 통해 ‘진짜 경쟁’에 나선다.

1년 전 겨울을 생각하면 고종욱에게는 감사한 2024시즌이다. 고종욱은 지난해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한평생 추운 캠프를 보냈다. 고종욱은 “작년에는 추운 곳에서 했었다. (이)우

성이랑 피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하자고 했었다”며 “사실 지난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출돼서 왔을 때 아프니까 경쟁에서 밀려나기도 했고, 작년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선수들이 아프니까 저한테 기회가 와서 연장 계약까지 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잘해야 한다. 우승이든 주전 경쟁에서 이겨서 잘한 모습 보니까 좋다”고 웃었다.

SSG에서 방출된 후 야구 인생 갈림길에 섰던 고종욱은 2022년 KIA 유니폼을 입고 다시 타석에 섰다. 지난해 출발선에서는 밀렸지만 동료들의 부상으로 기회를 얻었고, 114경기에 나와 286타석을 소화하며 0.296의 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뒤 계약기간 2년에 계약금 1억원, 연봉 1억 5000만원, 옵션 1억원 등 총 5억원에 KIA와 FA 계약도 했다.

“리그에서 가장 먼저 FA 계약을 하고 싶었다”며 웃은 고종욱은 “올 시즌 따뜻한 곳에서 몸을 잘 만들었다. 트레이닝 코치님들도 관리를 잘해주셔서 몸 상태가 정말 좋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몇 년간 대타를 많이 해서 지난해 많은 경기 뛰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많은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부상으로 얻은 기회 역시 부상이 관건이다. 고종욱은 “캠프에서 원래 부상으로 나오는데 애들도 있는데 지금 본 캠프 중에서는 가장 몸 상태들이 좋았다. 아프지 않아야 경쟁이 되니까 아프지 않



KIA 타이거즈의 ‘3할타자’ 고종욱이 9일 시작되는 시범경기를 통해 외야 경쟁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일본 오카나와 캠프에서 진행된 야쿠르트와의 연습경기에서 타격하는 모습.

는 게 최우선 목표다. 그리고 시범경기 때 어떻게 감독님 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경쟁이 시작된다”며 “이제 경쟁이다. 자리 안 주려고 노력해야 한

다. 선의의 경쟁이 돼야 강한 팀이 된다. 대타 나갔다가 주전 나갔다가 이런 것을 많이 안 해봐서 지난해에는 컨디션 관리에 미숙했다. 올해는 그렇게 하

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다. 선수들 목표가 다 우승이다. 그 목표를 위해 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괴물’ 컴백홈

한화 류현진, 4172일만에 대전서 연습경기... 3이닝 3K

12년 만에 KBO리그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36)은 명물처럼 돌아왔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는 공은 거의 없었고, 최고 시속 144km까지 찍으면서 손조로운 KBO리그 개막전 등판 준비 단계를 밟았다.

류현진은 7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구단 자체 연습 경기에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46개의 공을 던져 1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을 남기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비록 청백전이긴 해도, 류현진이 대전 마운드에 선 것은 미국프로야구(MLB) 진출 이전인 2012년 10월 4일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 전 이후 4172일 만이다.

지난 시즌까지 11년 동안 MLB 마운드를 호령했던 류현진은 지난달 한화와 8년 총액 170억원의 조건으로 계약해 KBO리그 복귀를 알렸다.

지난달 23일 일본 오카나와 팀 캠프에 합류해서는 두 차례 볼펜 투구와 한 번의 라이브 투구를 손조롭게 소화했다.

한화 복귀 이후 첫 실전 경기 등판을 소화한 류현진은 최고 시속 144km를 스피드건에 찍었다. 쌀쌀한 날씨에도 류현진의 구속은 불과 다섯 전인 2일 라이브 투구 최고 시속 139km보다 시속 5km가 빨라졌다.

류현진은 1회부터 삼진 2개를 곁들여 공 15개로 깔끔하게 타자 3명을 돌려세웠다.

1번 타자 정은원에게 볼 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높은 속구를 던져 루킹 삼진을 잡았다.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을 적용한 이날 경기에서 ‘로봇 삼판’은 류현진의 높은 공을 스트라이크로 판정했다.

이어 2번 타자 문현빈은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문현빈에게 던진 2구째 공은 시속 144km까지 나왔다. 3번 타자 김태연은 5구 대결 만에 바깥쪽 백도어 커터로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2회는 4번 타자 채은성에게 좌익선상 2루타를 맞았다.

후속 타자 이진영을 내야 땅볼로 정리한 류현진은 하주석 타석에서 폭투로 2루 주자 채은성을 3루까지 보냈고, 하주석에게도 볼넷을 허용했다.

7번 타자 이재원에게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내줘 1실점 한 류현진은 8번 이명기를 초구에 땅볼로 처리하고 2회를 끝냈다.

3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박상연을 내야 뜬공, 김강민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정은원을 좌익수 뜬공으로 돌려세우고 임무를 마쳤다.

청백전에서 손조롭게 실전 감각을 깨운 류현진은 12일 KIA전과 17일 롯데전까지 두 차례 KBO 시범경기에서 등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배구유망주 ‘문흥중 송태인’ 지원

뛰어난 피지컬·수비력 등 장점

광주시체육회가 배구유망주로 문흥중 1학년 송태인을 발굴했다.

키 192cm의 장신인 송태인은 취미로 시작한 건국초 배구클럽에서의 활약으로 광주시 배구 대표팀 나철수 지도자의 눈에 띄어 선수로서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엘리트 선수로 추천되어 문흥중으로 전학해 센터 포지션에서 활약중이다.

배구인들은 송태인에 대해 “수비력과 승부 근성을 고루 갖춘 보기 드문 장신 유망주”라고 평가하고 있다.

송태인에게 운동 DNA를 물려준 탁구선수 출신의 어머니 이선영씨는 “유망선수로 선발되어 감사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운동선수로서 삶을 지내보았기에 어려운 결정을 한 아들을 믿고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송태인(오른쪽)과 전광주광역시체육회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광주광역시체육회장은 “부상 없이 꾸준히 성장한다면 광주 남자배구를 이끌 차세대 에이스가 될 것이다”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기업인들 WBO 타이틀 매치 앞둔 강종선 선수 후원금 전달



진단건설 박병준·프로웰 김원철 대표

평소 복싱 인재 양성에 힘써 온 기업인들이 WBO(세계복싱기구) 타이틀 매치를 앞둔 강종선(22)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진단건설 박병준 대표와 한샘종합식품 프로웰 김원철 대표는 6일 강종선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사진>

WBO 동양태평양 실버 챔피언인 강종선은 역대 전적 21전 18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WBC 유스세계 챔피언과 WBO 오리엔탈 챔피언을 지녔다.

그는 오는 5월 4일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대만의 유체리와 WBO 세계타이틀매치 전초전인 글로벌 페더급 타이틀매치를 치른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묘
- 2관 파묘
- 3관 둘: 파트2, 병거 게임
- 4관 파묘
- 5관 파묘, 둘: 파트2, 생츠퍼리 2: 퀴카가 너무해
- 6관 파묘
- 9관 [위드키즈]브레드아이발스: 셸럽 인 베이커 리타운, 월가
- 7관 싸네거들 둘: 파트2, 패스트 라이브즈, 예수는 역사다
- 8관 싸네거들 가여운 것들, 패스트 라이브즈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3월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윤우제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